

보도자료

이 자료는 1월 11일 (조)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 『노동리뷰』 1월호 - 이슈분석

■ 업무내용과 대학(원) 전공의 불일치 (김기현)

- 최근 고학력화 추세와 경기 침체로 인하여 전공과 무관한 일자리에 취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노동패널(KLIPS) 7차년도 자료를 이용해 조사 당시(2004년) 취업한 일자리에 고등교육(전문대~대학원) 졸업자들의 전공불일치 실태를 살펴보았음. 그 결과, 대학(원)졸 취업자 10명 중 6명 꼴(58.1%)로 현재 취업한 일자리의 업무내용과 최종 졸업학교의 전공분야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볼 때, 남성(56.8%)보다는 여성(60.6%)의 전공불일치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30세 미만 젊은층(61.0%)이 40세 이상 중고령층(51.7%)보다 전공불일치도가 높게 추정되었음. 고등교육기관별로 볼 때, 전문대졸자의 62.9%가 전공과 무관한 일자리에 취업한 반면, 4년제 대학교 졸업자는 58.0%, 대학원 졸업자는 43.5%가 전공과 다른 일자리에 취업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임금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정규직(54.7%)보다 비정규직(71.1%)의 전공불일치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정규직 노동자내에서 전공과 일치하는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의 연간 근로소득(2940만원)이 전공과 무관한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2498만원)보다 높게 나타남. 직무만족도에 있어서도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 취업한 임금노동자가 전공과 관련 없는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보다 높게 나타남.

문의처 : 한국청소년개발원 김기현 부연구위원

Tel : 2188-8880 E-mail : kihuns@youthnet.re.kr

* 한국노동연구원 보도자료 및 원문은 인터넷(<http://www.kli.re.kr>)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업무내용과 대학(원) 전공의 불일치

담 당 자	한국청소년개발원 김기현 부연구위원
전 화	02)2188-8880

- 최근 고학력화 추세와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본인의 학력보다 낮거나 전공과 무관한 일자리에 취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노동공급-수요간의 질적 불일치는 개인적으로 볼 때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을 살리지 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인적자원의 낭비라는 비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 7차년도(2004) 자료를 이용하여 고등교육 졸업자들 중 2004년 조사 당시 취업자를 대상으로 업무내용과 전공간의 불일치 실태를 살펴본 결과, 대학(원) 졸업자들 중에서 현재 하고 있는 업무 내용과 학교에서 배운 전공분야가 일치하지 않는 전공불일치도는 58.1%로 나타났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전공불일치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표 1 참조).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전공불일치 실태

		전공 일치	전공 불일치	전 체
	전 체	41.9 (714)	58.1 (991)	100.0 (1,705)
성 별	남 성	43.2 (482)	56.8 (634)	100.0 (1,116)
	여 성	39.4 (232)	60.6 (357)	100.0 (589)
연령별	15~29세	39.0 (217)	61.0 (339)	100.0 (556)
	30~39세	39.4 (256)	60.6 (394)	100.0 (650)
	40세 이상	48.3 (241)	51.7 (258)	100.0 (499)
학교 유형별	전문대학 졸	37.1 (200)	62.9 (339)	100.0 (539)
	대학교 졸	42.0 (419)	58.0 (579)	100.0 (998)
	대학원 졸	56.5 (95)	43.5 (73)	100.0 (168)

주: 2004년 당시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취업자

- 먼저 전공불일치 여부에 있어서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56.8%)보다는 여성(60.6%)의 그것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연령별 차이를 살펴보면, 젊은층(61.0%)이 중고령층(51.7%)에 비해서 전공불일치도가 높게 추정되고 있음. 이것은 경제위기 이후 청년실업이 크게 증가했고

경기회복이후에도 젊은층의 취업기회가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고등교육기관별로 살펴본 결과, 전문대졸자의 62.9%가 전공과 무관한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는데 비해 4년제 대학교 졸업자는 58.0%, 대학원 졸업자는 43.5%가 전공과 다른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공분야별로 살펴보면, 교육계열 전공자들의 전공불일치도가 가장 낮았으며 인문/예체능계열 전공자들의 전공불일치도가 가장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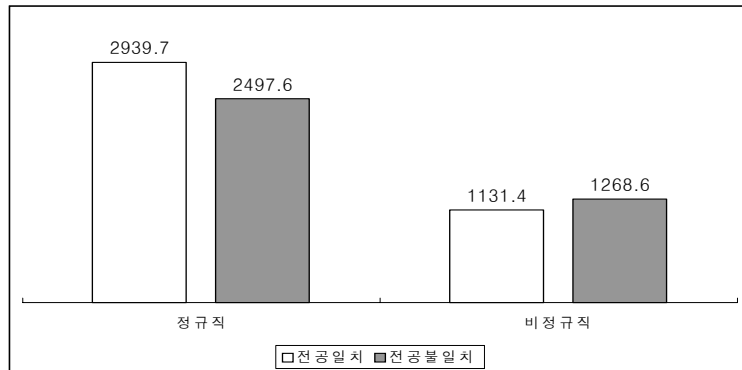
- 성별 차이와 관련, 두드러진 특징은 공학계열의 경우로 대학(원)졸 여성의 전공 불일치도(71.2%)는 대학(원)졸 남성의 그것(45.9%)보다 25.3% 포인트나 높았음.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이공계열 인력을 채용하는 직장이 대체로 여성 친화적이지 않다는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교육수준별로 볼 때 공학계열의 경우 대학원 졸업자들의 전공불일치도(10.5%)가 전문대(52.5%)나 대학교 졸업자들(48.0%)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고, 교육계열 졸업자들(전문대 : 대학교 : 대학원 = 22.2% : 27.3% : 5.0%)의 경우도 유사한 양상을 보여줌.
- 이것은 전공불일치 여부만을 놓고 볼 때 교육 및 공학계열이 전공심화에 따른 이점이 가장 크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음.

○ 대(학원)졸 취업자 중 임금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전공불일치에 따른 노동시장 결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임금노동자 중 종사하는 일자리가 상용직(55.6%)일 때 임시직(69.3%)이나 일용직(63.3%)보다 전공불일치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정규/비정규직으로 구분해 볼 때도 정규직인 경우(54.7%)가 비정규직인 경우(71.1%)보다 낮은 전공불일치도를 보여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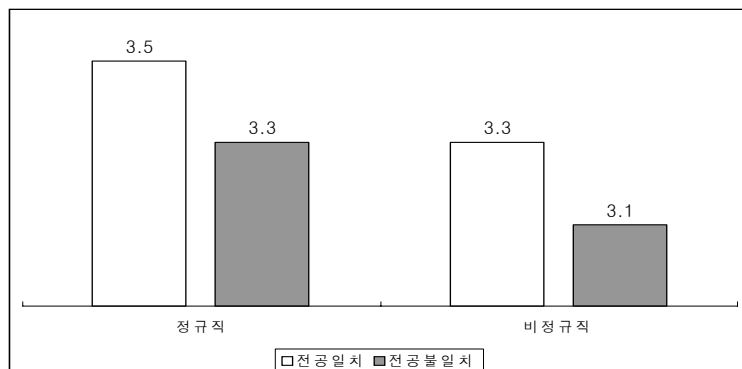
○ 정규직의 경우 전공과 일치하는 일자리에 취업한 임금노동자의 연간 근로소득(2939.7만원)은 그렇지 않은 일자리에 취업한 임금노동자의 그것(2497.6만원)에 비해 연간 442.1만원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비정규직의 경우 전공불일치 여부에 따른 차이(137.2만원)는 크지 않으며 전공불일치인 경우가 오히려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음([그림 1] 참조).

[그림 1] 전공 불일치 여부에 따른 세전 총 연간 소득 비교



- 전공불일치 여부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정규/비정규 구분과 상관없이 전공과 무관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임금노동자가 전공과 일치하는 분야에서 일하는 임금노동자에 비해 직무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그림 2] 참조).

[그림 2] 전공 불일치 여부에 따른 직무만족도 비교



○ 시사점

-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학 진학은 주로 어느 전공을 선택할 것인가 보다는 어느 학교를 선택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대학이 서열화되고 채용 시 전공보다는 학교가 우선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경향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 그러나, 앞의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전공과 무관한 일자리에 취업했을 때 임금이나 직무만족도 등 노동시장 결과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전공 선택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